

北 김정은, 평창올림픽 참가 용의

안철수 “환영” vs 유승민 “시간벌기”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논의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통합 파트너인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2일 '평창올림픽 참가 용의'를 밝힌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 신년사를 놓고 약간의 온도차를 보여 주목된다.

이에 따라 양당이 통합 실무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가장 차이가 크다고 여겨지는 '북북·안보관'이 갈등 뇌관이 될지 시선이 모아진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창올림픽 참가 용의를 거론한 김 위원장 신년사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북핵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미국의 발표에 따르면 ICBM(대륙간탄도 미사일)이 석달 정도면 완성될 거라는 우려가 있다. 올림픽 기간이긴 하지만 그에 대한 대비도 케를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체로 김 위원장의 발언에 긍정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유 대표는 조금 달랐다.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실무 협상 앞둔 상황

대북·안보관 갈등 '주목'...안노선정리 추측

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이용해 핵미사일을 완성하려는 시간을 벌기 위한 제스처일 뿐"이라고 김 위원장 신년사를 혹평했다. 그는 "금년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없앨 거냐. 아니면 핵동결에 동의하고 핵을 머리 에 이고 살아갈 거냐를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보 부분에서 철저한 보수의 기치를 내세운 것이다.

양당 대표의 발언에서 감지되듯 대북·안보 문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국면에서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정체성 차이로 지목돼 왔다. 특히 국민의당의 경우 햇볕정책 계승을 표방해온 동교동계가 당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게 사실이다.

안 대표 스스로도 바른정당 통합을 D(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 계승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대북·안보관을 두고 설볼리 운신하기가 어렵다.

반면 바른정당에서는 유 대표가 공개적으로 '보수 정체성'을 천명한 만큼 대북·안보관 부분에선 양보·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게 대체적 기류다. 특히 바른정당 내부에선 양당 통합을 앞두고 박지원 전 대표 등의 거취도 주목하는 모양새다.

이같은 상황에서 통합 파트너인 안 대표와 유 대표가 김 위원장 신년사에 온도차를 드러내면서, 이를 계기로 양당의 대북·안보관 차이가 통합 국면의 본격적 이슈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일각에선 바른정당 측에서 햇볕정책을

비롯해 동교동계 등에 대한 공개적인 '정리 요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안 대표는 정당원투표 이후 당내 중립-법반파와 의원들에 대한 접촉 의사를 밝히면서도 박 전 대표와 천정배 전 대표, 정동영 의원 등 반대파 핵심 의원들에 대한 설득·접촉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때문에 이날은 김 위원장 언급에 원론적 찬성 입장을 내놓았지만, 결국은 통합론이 더 무르익어가는 시점에 어떻게든 당내 대북·안보노선을 정리하고 나서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가능하다.

실제 안 대표는 지난해 12월31일 정당원투표 직후 기자회견을 비롯해 통합 필요성을 설파하는 자리에서 여러번 '안보 위기'를 강조하기도 했다. D 햇볕정책 계승을 확고한 신념으로 여기는 박지원 전 대표 등 호남 출신의 동교동계 핵심 인사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 및 오찬을 마친 후 참석자들과 함께 '나라답게 정의롭게'를 외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인삿말에 靑 폭소

“나이 먹는 떡국, 몸에 해로워”

이진성 신임 헌법재판소장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재치있는 인삿말에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신년 인사회장이 웃음으로 가득했다.

이 소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년 신년회에서 정부 5부요인에게 주어진 신년 인사를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마이크를 잡았다.

이 소장은 어제 먹은 떡국을 거론하며 "떡국이 세상에서 가장 위

험한 위험한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 좌중을 웃게 했다.

이 소장은 "최근 연구발표에 따르면 떡국은 고혈압·고지혈증·당뇨·비만 등을 유발하는 위험한 음식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면서 "무엇보다 (몸에 해로운) 주요한 원인은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먹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MB, UAE원전 논란에 “이면계약 없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일 아랍에미리트(UAE)원전 수출과 관련 "이면계약은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관계자측은 2일 뉴스시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전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열린 신년하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하례회에는 친이명박계 인사 6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UAE 원전 수출 당시 맺은 이면계약이 문제가 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이면계약이 잘못되면서 UAE와 관계가 악화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입증적 청와대 비서실장을 파견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면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스

통합 반대파 향한 安의 반박...“명분 없다”

“중심 잡고,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으면 돼”



국민의당 안철수(가운데)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당 2018년 사무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규 국민정책연구원장, 안 대표, 김관영 사무총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재신임 투표율이 낮다, '적폐연대가 될 것'이라는 등의 당내 통합 반대파 주장에 "명분이 없다"고 일축했다.

안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의원회

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중앙당 사무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반대하는 분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두 가지'라며 "첫째는 이번 재신임 투표의 투표율이 24%가 낮다는 주장, 둘째는 적폐연대가 될 것이고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것인데 두 가지 이유 다 명분이 없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우선 이번 투표율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린다. 다른 정당에선 열성 당원들 그러니까 당비 내는 당원들만 모여서 투표를 하더라도 그 투표율이 20% 초·중반대에 그치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당은 정당원까지 모두 합쳐서 전당원 투표를 했는데도 20% 중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 투표 안 한 70%는 투표를 반대한 것 아니냐고 말씀했는데 그런 민주주의 기본 상식과 위배된다. 투표를 하지 않은 분들은 투표 참여자들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 아니겠냐"라며 "그게 민주주의 선거제도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민약 투표율이 낮다면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을 때 전 국민의 30% 정도의 지지를 받은 셈인데 그럼 전 국민 70% 정도가 그를 반대한다던 얘기가, 그건 논리적으로도 옳지 않은 주장"이라며 "무엇보다도 법원에서 판결을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계속 반대하는 이유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도 했다.

안 대표는 또 "적폐연대 또는 2단계 통합을 주장하는데 그런 일은 분명히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당이 바른정당에 비해 4배 이상 큰 정당인데 도대체 뭐가 두렵냐"라며 "우리가 정말 원하는대로 중심을 잡고,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으면 되잖나. 그것 역시 설득력 없고 명분없는 주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리 보면 왜 반대하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대안이 없다"며 "지방선거가 앞으로 5달 밖에 안 남았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외연 확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우리 지지율을 높이고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인재영입 할 건지 그런 대안을 제시해야만 건강하고 건설적인 토론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향후 통합 절차에 대한 질문에는 "정식으로 당무회의가 열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가지 일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그 단계마다 밝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뉴스스

국민-바른 통합과, 내일 광주서 '동행'

안철수-유승민 참석 조율

국민의당 통합과 의원들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4일 광주에 동행, 공동행사를 진행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양당 국회의원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오는 4일 광주를 방문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민생경제 현안 청취 정책포럼'을 가진 예정이다. 2일 밝혔다.

국민통합포럼은 지난해 9월 추석 연휴 전 결성된 이후 매주 포럼을 열어왔으며, 광주 전남에서

공동행사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포럼에는 국민의당에서 16명, 바른정당에서 9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방문길에는 이언주(국민의당), 정운현(바른정당) 공동대표를 포함해 포럼 소속 양당 국회의원, 지역위원장과 당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 참석 여부도 막판 조율중이다.

포럼은 도시락 회의로 열리며, 장소는 광주상공회의소 등 제3의 장소를 모색중이다.

뉴스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무료상담환영”